



# 불교 문화권 東亞 국가에선 ‘백중문화’ 보편화

## 중국의 우란분절은?

불교·도교·농경의례의 성격 짙어 문화대혁명으로 자료 대부분 소실 현재 죽은 자 위한 명절로 의미 축소

우란분절, 백중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비교적 불교와 중국문화의 영향이 큰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이는 보편적인 행사이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음력 7월 15일은 매우 중요한 명절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중국에서는 7월 15일을 일반적으로 중원절이라 한다. 문화대혁명의 영향으로 많은 전통문화가 사라져 현재 대륙에서는 백중에 대한 흔적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다행히도 그에 관련된 많은 문헌과 해외에 사는 화교 사회 및 비교적 현대 중국의 정치적 영향이 적었던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지에 그 흔적이 강하게 남아있어서, 그것들을 통해 오늘날 우리는 중국의 중원절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보면 중국의 중원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불교의 우란분절이다. 남북조 시대 때 제나라 군주인 고제(高帝)가 7월 15일에 널리 사찰에 분을 보내어 승려들에게 공양했다고 하며, 또 남조의 양무제가 통태사에 행차하여 우란분절을 설하였다는 기록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그리고 북조 사람인 중흥이 쓴 <형초세기(行初世紀)>에는 7월 15일이 되면 승려와 도사와 일반인들이 모두 분(盆)을 마련하여 제불에게 공양하는데 이는 <우란분경>에 절명의 공덕을 드리며, 변(幡)과 꽃, 가(歌)와, 과(菓)를 바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우란분은 후대에 내려오면서 점차 꽃으로 장식하여 화려하게 변화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우란분경에 근거하여 우란분절이 화려하게 행하여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는 도교의 중원절이다. 전설에 의하면 용왕의 딸이 진자춘이라는 남자에게 반해 그의 아내가



우란분절을 맞은 대만사찰 정문 모습.



대만 사찰에 설치된 우란분절의 영가천도를 위한 명탁.

되어 아들 3명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모두 신통력이나 법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원치천군이 장남을 천관, 차남을 지관, 삼남을 수관으로 각각 임명했다. 장남은 1월 15일에 태어나 상원1품의 자리에서 천관사복대제라 칭하고 천신을 통솔하면서 인간들에게 복을 주었고, 차남은 7월 15일에 태어나 중원 2품의 자리에서 지관사복대제라 하여 구주, 팔국의 신들을 통솔하고 인간들의 죄를 사면했다. 그리고 삼남은 10월 15일에 태어나 하원 3품의 자리에서 수관해액대제라 하며 수신을 통솔하고 사람들의 재액을 막아 주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신의 탄생일인 상원, 중원, 하원의 날에 묘를 찾아가 잘못을 빌고 액을 물리치고 복을 비는 날이었다. 이처럼 도교에서도 7월 15일은 매우 중요한 날이었다.

셋째는 죽은 조상들이 찾아오는 날이다. 지난 7월 중국 운남성을 여행한 적이 있었다. 그 때 만난 나시족(納西族) 청년에게 중원절에 대해 물었더니 7월 1일에 묘지에 가서 조상을 모셔와 집에 모시고는 대접하고 7월 15일에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했다. 청년이 때 사람이든(人壽)이 쓴 <연경세기(燕京歲時記)>에는 7월 15일 사람들은 성묘를 가서 청소를 하며 제사를 지낸다고 했던 것도 바로 이 날이 조령이 방문하는 날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넷째는 농경의례로서의 중원이다. 복건성(福建省)의 영안(永安)에서는 이 날 조상에게 햅쌀(新米)과 술, 고기를 바친다고 했으며, 또 호북성(湖北省)의 감리(監利)에서도 마을 사람들이 조상에게 햅쌀과 가족을 조상들에게 바치고 연회를 베푸는 날이라고 한다. 이처럼 7월 15일은 1년 중 처음으로 수확한 햅쌀을 조상에게 바치는 날이었다. 화남과 홍

콩에서 이 날 집안과 마당 그리고 집 바깥에 향을 모심기 하듯이 꽃아두는 것도 이 날이 다른 아닌 벼의 풍년을 기원하는 농경의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도 이러한 요소가 많이 퇴색되어 오늘날에는 죽은 영혼들이 찾아오는 날의 성격이 강하다. 특히 대만에서는 7월 한 달은 지역에서 고통 받는 아귀들이 한 달간 휴가를 받아서 이승으로 돌아온다고 믿는다. 아귀들은 후손이 없거나, 결혼하기 전에 죽었거나, 사고로 인해 불행하게 죽은 불쌍한 원혼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항상 굶주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푸짐한 음식으로 응송하게 대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현관마다 아귀를 위한 음식을 차려놓은 모습들이 심심찮게 보인다.

중원날의 도사 또는 승려들의 중요한 역할은 동네의 아귀들을 전부 불러 모아 음식을 대접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사원에서는 아귀들을 초청하는 안내장을 게시하고, 돼지 및 내장과 술과 음식들을 차려놓고, 동네를 다니며 조릿대로 동네아귀들을 불러 모으고, 설교한 다음 대접하는 의례가 치러진다. 그야말로 대만의 중원날은 아귀들의 향연인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조상을 위해서 명진(冥錢)을 태워 바치고, 또 명탁(冥宅)이라 하여 화려한 색종이로 만든 고급주택을 만들어 바치기도 한다. 그 집 안에는 침대와 텔레비전, 에어컨, 가전제품 일체가 구비되어 있고, 심지어 자가용과 후대까지 갖추어져 있는 것도 있다.

물론 그것을 사다는 계약서도 두 장을 작성하여 한 장은 집안에 붙여놓고, 또 다른 장은 유족들이 보관하기도 한다. 이처럼 오늘날 중국의 중원절은 죽은 자를 위한 명절로서 성격이 강하다.



일본 교토의 동본원사 영당에서는 음력 7월 15일 등에 불을 밝혀 조상의 영혼을 불러 위로한다.

## 일본의 우란분절은?

오봉으로 불리며 7세기부터 시작 설날과 더불어 일본의 2대 명절로 “죽은 조상들이 집을 찾아오는 날”

일본은 7월 15일을 오봉(御盆) 또는 중원이라 부른다. 전자는 불교의 우란분을 줄인 것이고, 후자는 도교에서 일컫는 호정이다. 이러한 명칭에서 보면 일본의 백중은 불교와 도교적인 요소가 골고루 섞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작 그 속을 들여다보면 도교적인 색채는 약하고 불교의 우란분절의 요소와 조상을 모시는 망혼제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에 있어서 오봉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8세기 초엽의 문헌인 <일본서기(日本書紀)>이다. 그것에 의하면 606년 4월 8일 조에 “올해부터 처음으로 각 사찰마다 4월 8일과 7월 15일에 제를 설치했다.”고 하고, 또 657년 7월 15일 조에 “비조사의 서쪽에 수미산 묘당을 만들고, 또 우란분절을 설치했다.” 하며, 그로부터 2년 뒤인 659년 7월 15일 조에 “서울 내 여러 사찰에서 <우란분경>을 강설해 하고 7세 부모의 은혜를 보답해 했다.”는 내용들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일본에서 우란분절은 7세기 초엽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오늘날 오봉 때 절에서 취하는 태도는 대략 두 가

지 형태로 나타난다. 한 가지는 스님들이 신도들의 집을 찾다니며 망자를 위해 독경으로 제사를 지내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절에서 우란분회를 실시하는 경우이다. 어떠한 형태를 취하든지 일본 중 스님들이 가장 바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절에서 행하는 행사를 보통 우란분회라 하지 않고 시아귀회라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일본의 오봉에는 우란분회와 시아귀회가 복합되어있는 것이다. 우란분회는 <우란분경>이라는 경전에 의거하고 있었으나, 시아귀회는 당나라 때 불공이 번역한 <구발염구아귀다라니경(救拔焰口餓鬼多羅羅經)>에 의거하고 있다. 이 경전에 등장하는 아귀가 바로 염구아귀인데 얼굴이 못 생겼고, 게다가 아귀에 있으며 항상 입안에는 불을 품고 있는데, 바로 그 아귀가 어느 날 석가의 제자인 아난(阿難)에게 찾아와 “너는 3일후에 죽어 아귀도에 떨어질 것이다.”고 예언하자, 이에 깜짝 놀란 아난이 부처님에게 찾아가 가르침을 청하자 다라니를 외우고 음식을 베풀면 일체의 아귀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다.

<28면에서 계속>



스님이 임찍한 후 첫 오봉일에 차려진 불단.



## 놀라운 NEPAL 히말라야 석청(꿀) WILD HONEY 효과

석청은 네팔 히말라야산 2500-4000M의 높은산에서 서식하는 ‘아피스라보리오사(Apis Laboriosa)’벌이 만들어 내는 천연 꿀로서 옛날부터 신비의 물질로 알려져 왔다.

이벌은 덩치가 크고 사나우며 높은 바위에 벌집을 짓고, 벌집의 크기는 자동차 크기만한 것도 있다. 석청을 채취하는 사람은 ‘바랑게’라 부르며, 밧줄로 사다리를 만들어 높은 바위속으로 올라가 석청을 대나무장대로 채취하며, 밑에서는 연기를 피우며 거둬서 떨어지는 석청을 받는다.

석청은 난치병 치료에 특효하며 히말라야 한의사들은 만병통치약이라 부른다.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며 네팔왕실에서는 국가를 방문하는 귀빈들에게 답례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석청이 알려져 우리나라 KBS에서 2번이나 현지에서 석청 채취장면을 촬영하여 방영한 바 있다. 고질병, 난치병 치료에 효과와 체력 사례들이 알려져, 여성잡지「Queen」에 당뇨치료 효과가 특집으로 소개되어 국내에서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 굳어있는 세포를 생성시키고, 15일만 복용해도 정력이 왕성해져 ‘비아그라’ 이상의 효과를 나타낸다.
  - 복용후 2~3주가 지나면 오장육부가 좋아져 피부가 윤색해진다.
  - 암, 간염, 위궤양, 위염, 중풍, 당뇨, 고혈압, 아토피성, 아토피성피부, 관절염, 기관지천식, 신경통, 중이염, 만성두통, 변비, 성기능 장애 등 고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 (혈액순환장애)
  - 체질을 개선하고, 노화를 방지한다.
- ※아른 부위가 화끈거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롱아롱하고, 땀이 나고, 설사나 대소변이 대량으로 배출되고, 의식이 몽롱해지고, 눈물이 나기도하는 증세들은 사람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체질이 변하고 있고 치유되고 있다는 증거로 생각하면 된다.

KOREA.NEPALEXCHANGE CULTURE ASSOCIATION  
**한국네팔 문화교류협회**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8동 159-48 TEL : 02)2692-5363  
 울산사무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 690-1 TEL : 052)264-0126, 0577 M.P : 010-5559-5570 / 010-7159-4759 E-mail : JUNGRAN1227@hanmail.net

正品供給

- 가 격 : 600g(15일분) 30만원 / 1kg(1달분) 50만원 ※현재 백화점 소핑몰에서 1kg(1달분)을 10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 문 의 : 010-6232-6295 / 010-5559-5570 054-751-9755

•온라인 : 신협 10115-13-032450 최정란 / 경남은행 540-21-0500183 최정란 (입금후 2일내 배송)